

장수 사과 온·오프 판로 마련

홍로 3500톤 전국 시·군·구 판촉행사 나서 수원시 1000박스·제주도 200박스 출하

장수군이 최근 사과 값 폭락에 대응해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판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사과 팔아주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시·군·구의 장수사과 구매

협조를 요청하고 직거래와 판촉행사, 장수소핑몰, 우체국소핑몰 등 온라인 판로 확보와 가공식품 생산 등을 통해 10월 2일까지 홍로 잔량 3500여 톤을 판매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장수 사과 홍로 1000박스가 수원시에 200박스가 제주도로 각

각 출하했다. 수원시와 제주도 농민회가 장수 사과 농가들을 돕기 위해 구매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인천 남동구, 강화군, 고창군, 순창군 등 일부 지자체 및 기업에서 장수사과를 구입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체국소핑 등을 이용한 온라인 유통판매도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우체국 인터넷 소핑몰에서 장수 사과가 본격 판매됐으며 25일부터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에서도 판매된다.
올해 장수군 사과 생산량은 2만 9,700여 톤이며 추석 사과인 홍로의 생산량은 지난해 1만 1,425톤보다 35% 증가한 1만7577톤이다.
가을잠마와 태풍 '킹립'의 영향으로 사과 착색이 지연되는 등 추석 전 출하가 어려워지면서 시장 유통 가격이 하락했으며 현재 3500여 톤이 유통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폭락한 사과 가격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함께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잔량의 사과를 판매하고 사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사과 팔아주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시·군·구의 장수사과 구매 협조를 요청하고 직거래와 판촉행사를 열었다.

진안,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역 매아리

진안군은 23일 어린이 인플루엔자 초회 접종자 예방접종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빨라지고 사전 면역형성이 필요한 생후 6개월부터 만9세 어린이는 2회 접종을 해야 함에 따라 성인보다 한 달 먼저 접종을 시작했다.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 중 처음 인플루엔자를 맞은 어린이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보건소 또는 지정위탁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 김흥기가정의학과)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10월 중순 경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있고, 지난해 유행주의보 발령시점(11월 16일) 등을 고려할 때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2월~익년 4월)와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할 때 성인들도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다'

26일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진안군은 9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다'를 오는 26일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올린다.
'넌 특별하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루케이도 원작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작품상 대상, 최우수 연기상 수상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 가정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주인공 편치넬로가 자신의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자존감 UP 뮤지컬이다.
무대 경험이 풍부한 배우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감나는 연기와 꼭 찬 음악, 화려한 안무 등 풍성한 볼거리로 재미있고 흥겹게 주도하는 탄탄한 구성을 통해 환상적인 라이브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이 시대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를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으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진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3회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 선정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 김순홍)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활동에 적극 앞장서 한국여성의 귀감을 보여준 김숙임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숙임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숙임씨

석사,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조각보 대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인장대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는 다음달 1일 의암주논개 탄신 445주년 및 제5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의암주논개상 추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백운 면민의장 수상자 선정

김희중·김용태·박성표 씨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기호)은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과 면민화합에 공헌한 면민의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3개 부문 면민의장 수상자로는 산업장에 김희중(59), 공익장에 김용태(67), 애향장에 박성표(54)씨가 각각 선정됐다.
산업장 수상자 김희중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 소득 향상과 화합을 위해 술선수법하고, 현재는 인사작목반 총무와 백운농협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인삼, 수도작, 한우 등을 재배하여 농업 소득 향상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종자원 해답밭 동참지구 채종포 단지 지정에 따라 재배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제시하는데 앞장선 공이 인정되었다.
공로상 수상자 김용태씨는 10여년 전 고향인 백운으로 귀농하여 백운면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마을 경관사업을 시작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부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풀뿌리 마을이 공동체 회복을 통해 튼튼한 농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과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의 모범 사례로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향장 수상자 박성표씨는 재경백운면향우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향우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면민의 날, 각종 향우회 행사 참석을 적극 유도하여 내·외 면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이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다가오는 10월 3일 백운면 사무소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백운면민의 날 및 제38회 면민체육대회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성수면 자원봉사단 모자가정 집수리 실시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최근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관내 모자가정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성수면 자원봉사단(단장 김우식)이 주축이 된 봉사활동은 배수관 공사와 화장실 욕조 철거, 전기·타일교체, 집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지인 가정은 가구원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 배수관 막힘 문제로 생활하수가 역류하여 악취가 심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불편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성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가정 방문을 통해 발견하고 성수면 자원봉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도왔다.
이해석 성수면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 행복한 복지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행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 시범운영

무주군, 연말까지 49개 마을에도 수집장 설치키로

무주군은 23일과 24일 양일 간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 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 유통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조성을 시작한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이 설치 완료된 마을의 주민들과 판매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3일에는 안성면 덕곡마을과 상이목마을, 금평마을을 대상으로 했으며 24일에는 무풍면 덕평마을과 부남면 대소마을, 도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박각춘 과장은 "영세농업인과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출하기반을 마

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며 "나머지 49개 마을의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은 무주군이 직접 판로를 찾기 힘든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보장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콩, 팥, 토마토, 가지, 더덕, 도라지 등의 농산물을 품목에 관계없이 마을공동수집장에 내놓으면 농협(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에서

수거해 판매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수거한 농산물은 도매시장에 출하하며 경매나 매매 등에 의해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농산물 농업인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게 된다.
주민 김 모 씨(78세, 무풍면)는 "농사는 지어도 어디 내다 팔기가 참 어려웠는데 마을에 와서 수거도 해 가고 팔아서 돈으로 돌려준다니 기뻐가 된다"라며 "큰 물량은 아니겠지만 소소하게라도 팔아서 생활비라도 벌면 좋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무주=전문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